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지역의 초기 리빙랩 운영의 의미와 가치 - 전주와 창원 테스트베드 중심으로 -

Meaning and Value of the Initial Living-lab Oper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Test-Bed Area - Focused on Test-Bed in Jeonju and Changwon-

정지원* 유해연**
Jeong, Ji-Won Yoo, Hae-Yeon

Abstract

As urban regeneration is actively carried out, many proposals and systems for the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are being made. In most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reas, "Urban Regeneration Field Support Center" is the main driver of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e urban regeneration Field support center is simply views urban regeneration for business purposes, and monitoring and feedback are not properly conduc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itial Living-lab conducted in urban regeneration Test-beds and to check whether the operation method and form of the Living-lab can be applied and operated in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area.

키워드 :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초기 리빙랩, 운영, 전주, 창원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Test-Bed, Initial Living-Lab, Operation, Jeonju, Changw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이를 운영·관리·지원하는 주체들이 등장하고, 그 중 대표적인 주체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다. 테스트베드가 진행되었던 전주, 창원 등에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현장에 위치한 리빙랩에서 연구단 또는 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일상의 실험실'이라는 고유의 개념을 여실히 반영하여 R&D연구에서 계획하였던 정책,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연구하며 발전시켜나갔다.

반면, 최근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기구의 부족과 형식적인 기록화작업, 도시재생사업의 운영·지원에 만족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테스트베드지역인 전주, 창원의 리빙랩 운영 방식과 형태, 성과의 분석을 통해 이를 현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적용,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는데 있다.

* 송실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생

** 송실대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Hae-Yeon Yoo,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06978, South Korea. E-mail: zenism@ssu.ac.kr)

본 연구는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를 위해 보고서, 논문 등을 통한 이론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장답사와 전문가 면담이 진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진행된 지역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인 전주, 창원의 테스트베드지역과 연구진의 연구공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도시재생테스트베드의 이론적 고찰

2.1 도시재생테스트베드의 등장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는 도시재생연구개발 사업의 일부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수준의 도시재생 기술력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공동체 형성에 목표를 두고 1핵심, 2핵심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표1. 도시재생사업의 구분

1핵심	창원테스트베드기법 적용연구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전주테스트베드 기법 적용연구
도시 재생기법 개발	도시시스템 녹색재생 기술 개발
2핵심	복합용도 도시재생기반 기술 개발
도시재생 기반기술 개발	도시재생종합시스템 구축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2014)

본 연구에서는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기법이 시행된 전주, 창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도시재생 R&D연구의 1핵심 테스트베드는 2007년 11월부터 3년 6개월간 도시재생 기법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검증을 통해 기법을 보완, 완성하였다. 2010년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전주와 창원이 선정되어, 2011 3월 22일부터 2014년 4월 28일까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1핵심 테스트베드는 지역 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기법 개발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정책, 제도, 기법들을 추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실용성 검증 및 자력수복형 도시재생기법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2 전주테스트베드 개요

전주테스트베드는 전주시 구도심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규모는 $1,739,000m^2$ 이다. 전주테스트베드는 주거지구와 상가지구로 구분되어, 주거지구는 노송동, 인후1~2동 일대로 전주시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1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며, 규모는 $145,000m^2$ 이다. 상가지구는 중앙동, 진북동 일대로 전주시의 대표적인 쇠퇴상가지구이고, 규모는 $185,000m^2$ 이다.



그림1. 전주 테스트베드지역 마스터플랜
출처: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전주테스트베드 근린생활사업은 “테스트베드 전역사업, 주거지구 사업, 상가지구 사업” 3가지로 분류되며, 테스트베드 전역사업 9개, 주거지구 재생사업 7개, 상가지구 재생사업 7개로 총 23개의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었다. 세부 프로그램명은 그림2와 같다.

테스트베드 전역재생사업	주거지구 재생사업	상가지구 재생사업
적정기술 환경관리사업	커뮤니티 키친사업	빈 겹포·챌린지 사업
『천사마을』축제사업	폐가철거 및 도시농업사업	상가신탁창업지원사업
여름이 보여야 건 조성사업	주민공방 사업	발달로연계 환경경비사업
주민신문『천사동·발달사업』	김수리『해피하우스플러스』사업	만원행복거리사업
도시재생거점(주민복지지점)시설 조성사업	커뮤니티 가로『율령길·장비사업』	『그린박스』설치·운영사업
도시재생거점(주민복지지점)시설 운영사업	주민자치·환경관리사업	노술천 면소화사업
더불어 주민학교사업	마을 공부방 운영사업	테마 꿈목길 조성사업
문화예술『장나래·전통사업』		
에코스쿨 조성사업		

그림2. 전주TB 근린재생사업 종류

출처: 이연숙(2014), 전주 테스트베드 근린재생 사례, p.48

2.3 창원테스트베드 개요

창원테스트베드는 과거 상권의 중심지였으며 남북 해안 교통의 요충지였던 동서동, 오동동, 노산동에 걸쳐 마산만과 인접한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창원테스트베드는 3.15 의거길(대로)를 기점으로 분리된 두 지구를 주거지구와 상가지구로 설정하였다.



그림3. 창원 테스트베드지역 거점 구상도

출처: 도시재생사업단(2014), 창원 근린재생 테스트베드 백서, p.187

창원테스트베드의 총면적은 $547,600m^2$ 이며 사업지구는 $292,820m^2$ 이다. 상가지구는 창동 및 오동동 일대로 주변과의 연계 부족으로 슬럼화, 공동화가 발생하여 상권쇠퇴로 중심지 기능이 약화된 지역이고, 면적은 $144,000m^2$ 이다. 주거지역은 노산동 일대로 노후화된 주택과 토지의 이용이 혼재된 지역이며 노인·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면적은 $148,820m^2$ 이다. 창원테스트베드는 상가지구와 주거지구를 “사회적 재생사업, 경제적 재생사업, 문화적 재생사업, 도시환경 재생사업, 선도거점 재생사업” 5 가지 재생유형을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상가지구는 불종로를 중심으로 창동과 오동동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지역을 가로지르는 문화의 거리로 다시 한 번 나눠 4개의 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4. 상가지구 사업 총괄도

출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창원테스트베드 기법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p.121

상업지역의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그리고 지역상권의 쇠퇴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5와 같이 각 재생사업 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재생계획을 수립하였다.

구분	전략	주요사업
사회적 재생사업	• 지역파트너쉽 체계 구축	• 원도심 재생 Site lab 운영
	•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 마산 원도심 창업혁신카페 운영
	• 지역 주민 리더 양성	• 소셜 쇼핑 및 지역회화 운영*
경제적 재생사업	• 다양한 상점활성화 시책 도입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상점가 Image-up 시책도입	• 창가지도 제작 활용*
	• 지역별 특화 브랜드 및 스토리 개발	• 소셜네트워크 기반 On/Off-line 서비스 육성 프로그램
문화적 재생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창출	• 2층 박람회 개최
	• 소자본 창업취지지원	• 2층 박람회 개최
	• 벤처포트 활용한 재생방안 모색	• 2층 박람회 개최
도시환경 재생사업	•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활동성 강화	• 미나는 S라인 창동거리도 S라인 사업
	• 유휴공간의 활용	• 주민참여 프로젝트 공간만들기
선도거점 재생사업	• 토지복합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오동동 생활플러스 도시형 상가주택 만들기
	• 대목적 광장조성	•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및 활용계획
	• 창조적 계급을 통한 신산업 발굴	• 창동예술촌 활용계획
	• 주차장 건립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창동 공연주차장 활용계획

그림5. 상가지구 재생유형별 대상사업

출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창원테스트베드 기법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pp.120-121

주거지구는 노산동을 ‘상업, 주거, 혼합’ 3가지의 특성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였고, 마산문학관에 이르는 루트를 기준으로 3개의 축으로 설정하고 3개의 축으로 인해 나뉘어진 3개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3개 권역, 3개의 축, 3개의 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6. 주거지구 사업 구상도

출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창원테스트베드 기법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pp.125

주거지구는 상가지구와 다르게 나뉜 구역마다 알맞은 재생전략을 설정하여 구역별 재생전략을 수립¹⁾하였으며,

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창원테스트베드 기법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p.124 <설정구역별 재생전략 및 도출사업> 참고

구역별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은 그림7과 같다.

근원재생방향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비고	근원재생방향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비고
사회적 재생사업	• 마산 원도심 창업혁신카페 운영	01			
	• 소셜 쇼핑 및 지역회화 운영*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경제적 재생사업	• 다양한 상점활성화 시책 도입	02			
	• 상점가 Image-up 시책도입				
	• 지역별 특화 브랜드 및 스토리 개발				
문화적 재생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창출	03			
	• 소자본 창업취지지원				
	• 벤처포트 활용한 재생방안 모색				
도시환경 재생사업	•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활동성 강화	04			
	• 유휴공간의 활용				
선도거점 재생사업	• 토지복합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05			
	• 대목적 광장조성				
	• 창조적 계급을 통한 신산업 발굴				
	• 주차장 건립을 통한 접근성 강화				
문화적 재생사업	• 25년 꿈목길 뮤지엄 스트리트 개최*	06			
	• 창동·오동동 “산해진마을” 만들기*				
	• 회암창업 프로젝트 “나도 꿈보다”				
	• 벤처포트 활용 문화·예술 동아리스튜디오 조성				
	• “Made in 부림”(부림시장 꿈방촌 조성)*				

그림7. 주거지구 사업 구상도 범례

출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창원테스트베드 기법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pp.125

3. 테스트베드지역 활성화를 위한 초기 리빙랩

3.1 전주테스트베드의 리빙랩 운영 및 성과

전주테스트베드의 리빙랩은 2011년,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주TB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되었다. 테스트베드 시작 6차년도에는 ‘총괄팀과 현장지원팀,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장지원은 ‘TB전역지원팀, 주거지구지원팀, 상가지구지원팀, 녹색기술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다²⁾. 리빙랩에서 다양한 연구진들이 모여 이야기하였으며, 주거담당 연구원과 사무국장, 사무국원, 연세대 연구원 총 4인이 항상 상근하며 운영되었다. 해당 사업은 연구단과 주민이 함께 문제를 찾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리빙랩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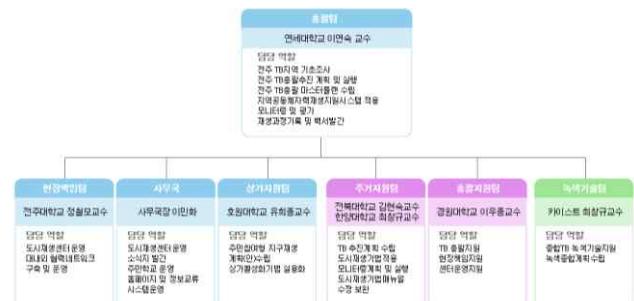


그림8. 전주TB지역 6차년도 조직도

출처: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ur-jeonjutb.org/we/tb/tb_2_1_1.php

3.2 창원테스트베드의 리빙랩 운영 및 성과

창원테스트베드의 리빙랩은 현장실험실(Site Lab)이라 불리운다. 현장실험실은 테스트베드 기법의 효율적인 적용과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효과적인 소통 및 현장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전주리빙랩과 동일하게 상근체제로 운영되었다. 현장실험실은 상가지구와 주거지구 두 곳 모두 운영되었으며, 상가지구는 주민이 무상으로 내어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되었으며, 주거지구는 노산동 주민센터

2) 전주테스트베드 7차년도와 8차년도 조직도는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에 마련되었다. 두 지구에 위치해있는 현장실험실은 주민 교육, 주민회의를 진행하는 공간이었으며, 더 나아가 활동을 위한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로서의 사랑방 역할을 시행하였다. 또한 리서치센터(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커뮤니티자인센터(주민참여 디자인 및 관리) 그리고 인포메이션센터(정보네트워크 허브, 안내소)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 내 재생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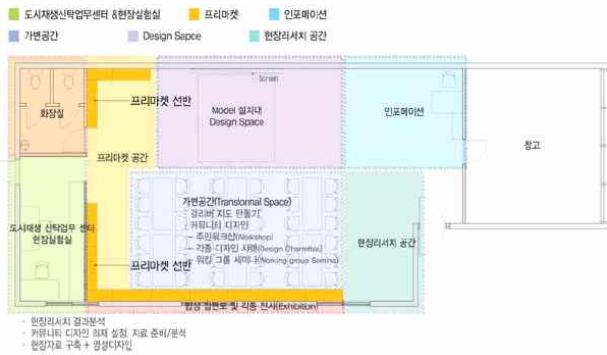


그림9. 상가지구 현장실험실 공간계획

출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창원테스트베드 기법 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pp.201

4. 도시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리빙랩 운영의 의의와 시사점

초기 리빙랩 사업에서 리빙랩이란 공간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불어 연구진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과 함께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초기 리빙랩 사업의 추진내용에 비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도상의 한계 등 요인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역의 특색을 찾고 강화하기보다는 정해진 메뉴얼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원활한 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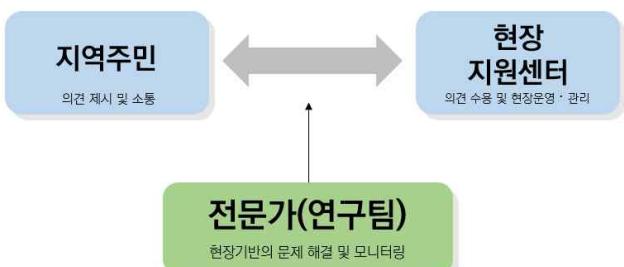


그림10.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운영 방안
출처: 저자(2021)

5. 결론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운영, 관리 및 지원을 하는 주체들이 생겨나고, 현재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 따라 인력 및 조직구성의 상황이 다르고, 지속운영의 어려움, 지원체계 및 지원금에 따른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을 기획, 운영,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 및 기획연구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주, 창원 테스트베드의 리빙랩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적용,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주 리빙랩의 경우, 연구진이 리빙랩에 상주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주민과 연구진이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창원의 리빙랩 경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주민과의 접촉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어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이 이뤄지는 동시에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찾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창원과 같이 주민들의 소통의 창구의 리빙랩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며 전주와 같이 현장지원센터 내에 연구진이 상주하여, 도시재생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전주 테스트베드 기법 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pp.96-100,
- 충북대학교, 창원 테스트베드 기법 적용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2014, pp.118-125, 199-206
- 도시재생사업단, 충북대학교, 2011~2014 창원 균린재생 테스트베드 백서, 국토교통부, 2014, pp.343-356
- 이연숙(2014), 전주 테스트베드 균린재생 사례, 대한건축학회 제 58권 제06호, pp. 47-52
- 도시재생사업단, 창원 테스트베드 균린재생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국토해양부, 2011, p.5, 10, 41, 68
- 황희연(2014), 창원 테스트베드 균린재생 사례, 대한건축학회 제58권 제06호, pp43-46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city.go.kr/index.do>
-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ur-jeonjutb.org/we/tb/tb_2.php